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전남 담양군 담양중앙공원 이재종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의 지원 유세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에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열린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7일 규제철폐 33호 수해지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눈에 띄는 주자 없는 군웅할거... 李 독주 속 비명계 가능성도

〈興〉

〈野〉

## 정치권, 조기대선 대비

興, 김문수 등 차기대권 후보 거론  
尹 대통령 지지층 여전... 간접 행보  
野, 이재명 중심 경제분야 보폭 확장  
선거법 2심 등 사법리스크 해소 관건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혁신을 이끌 새 정치의 기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권은 치고 나가는 주자 없이 여러 후보가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야권은 이재명 독주 양상이 선명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도 마땅하게 찾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 ◆ 興, 김문수·한동훈·오세훈·홍준표 등 군웅할거

여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특색 있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험 많은 후보들이 여럿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란 프레임으로 짜면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권 주자들은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세력 규합이나 정책에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4.0' 설계를 주장하며 24일 저서를 출간 예정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활동

의 소회가 담긴 저서를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출마 연령 조건을 맞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또 한 번의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 ◆ 野, 이재명 독주... 비명계 연합 후보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선 낙선에 쓴잔을 마시고 '와신상담'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각보다 빨리 '전화위복'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도 있다. 22대 총선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개편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 이후 야당의 경쟁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0.73% 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주식투자자와 수도권 중산층이 민감한 이슈를 이끄는 '중도보수'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경제침체 속 '경제'에 지속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로 떠오른 이후 그의 표리표처럼 따라온 '사법리스크'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여당의 원색적 공세를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보태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14일째 이어간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와 대적할 만한 연합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 ◆ 조기대선 치러질 경우 '정권교체' 51%- '정권유지' 39%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이 조금 더 좋은 여론 흐름을 유지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 선거법 2심 결과에 따른 여당의 공세 강화와, 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야권 우세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에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탄핵심판 선고 임박... 국난 극복 힘 모아야

》 1면 '정쟁에 지친 민심'서 계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는 여야의 반발을 모두 불러왔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이후 수사당국의 경쟁적 수사, 윤 대통령의 관저 버티기와 체포 시도, 종교계를 위시한 극우 세력의 등장,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방법원 폭동,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논란 등 각

종 가치를 치는 이슈마다 정치권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그 후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새 정치'에 쏠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24일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이번주, 대한민국 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새 정치'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